

전북 근로자복지관 새 단장

12억원 들여 리모델링... 체육시설·건강센터 갖춰

완주산업단지 내 위치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신단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새 단장을 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완주산업단지 내(완주군 봉동읍 과학로 860-15번지)에 위치한 전라북도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총 사업비 12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구조 보강 및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완주군이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내 근로자를 위한 체육시설과 근로자 건강증진

센터 각종 편의시설을 갖췄다.

특히 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의 권익과 편의 증진을 위해 지하 1층에 화상통화실, 인터넷실, 휴식공간 등 쉼터 공간을 별도로 마련했다.

또한 지하 1층은 어린이집, 슈퍼, 문구점 근로자건강센터, 미용실 등 복지·편의시설이, 지상 2층에는 산업단지 사무소, 문화재단, 예총 그리고 지상 3층은 대회의실, 강의실이 준비됐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월요일은 휴무이다. 기타 자

세한 사항은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운영팀(☎200-3345)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전북경제 중심지인 완주산업단지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며 일한 근로자들의 복지공간이 새롭게 탄생했다"며 "근로자 및 가족들이 이곳에서 편히 쉬고 즐길 수 있는 행복한 공간으로 많이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근로자종합복지관은 근로자는 물론 가족들에게 문화체육복지 및 편의공간을 제공하여 근로의욕 고취와 함께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로 활용돼 군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친목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4월 19일부터 이용가능하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 관광 챌린지 투어버스로 머무와인동굴을 구경하고 있다.

무주 챌린지 투어버스 운행

관광객 교통편의 제공

2016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가는 오는 16일부터 무주챌린지투어버스를 운행(09:00~18:00)한다고 밝혔다.

무주챌린지투어버스는 관광객들의 편의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계절 별로 엄선한 관광명소들을 연계·운행하는 것으로 이달 말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다음달 1일부터는 5일과 7, 8, 14, 15, 21, 22일에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산골영화제가 열리는 6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 간은 날마다 버스를 운행하며 7월 29일부터 8월 15일까지의 여름 성수기와 반딧불축제가 개최되는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도 매일 운행할 예정이다.

가을 여행철인 10월 15일부터

11월 20일까지는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 무주챌린지투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탑승료는 1인(1일 권) 1천원이며 미취학 아동은 무료다.

위메프(www.wemep.com)를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하며 탑승권은 관광안내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문의 : 무주관광안내소 1899-8687, 무주군관광협의회 063-323-7787).

군 관광협의회 맹갑상 회장은 "2016 올해의 관광지 무주를 방문한 관광객 여러분이 만족스러운 여행을 즐기고 또 다시 찾으실 수 있도록 코스개발과 효율적인 운영방향을 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올해를 계기로 2017 무주 WIT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둔 무주가 세계적인 명품관광지로 거듭나 수 있도록 투어버스 운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마령 이팝나무 복제해 보존한다

군, 산림과학원 등과 함께

진안군은 국립산림과학원 문화재청과 공동으로 천연기념물 노거수(老樹) 유전자원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유전자은행을 만들고 복제나무를 키우는 사업에 들어갔다.

진안군 마령면 경지리 이팝나무는 현재 마령 초등학교 내에 나무 높이 약 10m, 둘레 0.8~2.1m 정도의 5그루가 자라고 있다.

이팝나무가 모여 자라는 곳은 어린 아이의 시체를 묻었던 곳이라 하여 '아기사리'라고 부르며 마을에서 보



호해 왔다.

진안군 이팝나무는 조상들의 보살핌 가운데 가꾸어온 문화적 자료로서, 한 반도 서해안 내륙의 이팝나무가 살 수 있는 가장 북쪽지역에 있는 이팝

나무로 식물분포학적 연구 가치가 큰 것을 기인해 1968년 천연기념물 제214호로 지정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진안군 천연기념물 이팝나무와 같이 역사·학술적 가치를 지닌 천연기념물 노거수의 유전자(Gene)를 미래의 예측할 수 없는 태풍, 낙뢰, 화재 등 자연재해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악화로 인한 소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천연기념물 노거수와 똑같은 나무를 복제하고 DNA를 추출하여 장기 보관하는 방법으로 우수 유전자를 보존하게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 발전 상생협의회 개최

영농지원 발대식도 열려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지부장 정형모)는 11일 소양면 송광마을에서 관내 농협 계몽간 상호협력 및 역량결집을 바탕으로 농협발전을 위한 전주완주시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에 개최된 농협발전상생협의회에서는 농협의 경영혁신, 지역사회에서 농협이 담당해야 할 역할, 직원간 원활한 소통 방식 등에 대한 토론이 격의 없이 농촌 현장에서 활발하게 이뤄졌다.

정형모 전주완주시군지부장은 "자칫 무거울 수도 있는 회의 형식을 빌어 사무실에서 토론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나와서 농민들로부터 농업에 대한 애로사항과 농협에 대한 기대사항 등의 생생한 의견을 들으며 자연스럽게 위원들 간에 문제의식을 교환하고 공유



농협 전주완주시군지부는 11일 소양면 송광마을에서 농협발전을 위한 전주완주시군 농협발전상생협의회를 개최했다.

하는 자리가 필요했다"며 이번 행사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전주완주시군지부를 비롯해 소양농협 등 14개 지역 농·축협 농협발전상생협의회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농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 행사도 같이 진행되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원주=이종복 기자

무주농협, 2015 NH보험 연도대상 수상

일반보험부문에 선정 돼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은 지난주에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2015년도 NH농협손해보험 연도대상 수상식이 있었다.

이날 수상식에서 무주농협 곽동열 조합장이 주축이 되어 전 임·직원이 보험 사업에 열정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 2015년도 NH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 대상사무소에 선정되어 연도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날 수상으로 곽동열 조합장은 앞으로 보험사업에 전 임·직원이 앞장서 추진할 것이며 농업인 조합원을 위한 실익지원사업과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농협은 2015 NH농협손해보험 일반보험부문 대상사무소에 선정돼 연도대상을 수상했다.

로컬푸드리츠

장수군, 농기계 수리 교육 '호응'

장수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 수리 및 안전사용 기술교육을 실시해 농업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안전한 농기계 이용과 취조작 미숙으로 인한 농기계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오는 19일까지 마을 순회로 진행된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교육에 이어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8일까지 여성농업인을 중심으로 농기계 운전미숙과 부주의로 발생하기 쉬운 사고사례 위주의 교육과 농기계 정비요령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정원 소장은 "농기계관리 편리한 만큼 위험이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농기계 안전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농기계 안전교육과 사용법을 교육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수=교관호 기자

진안홍삼연구소, 해피바이오

진안홍삼농과 기술이전 협약

진안홍삼연구소(소장 고근택)는 11일 관내 홍삼 가공업체인 해피바이오 주식회사(대표 김수영), 진안홍삼농 마이산(대표 김소영)과 제품개발 개술이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한 제품은 홍삼과 마고를 결합한 어린이용 제품인 "밀키홍삼 하이판"과 마이산과 홍삼을 형성한 "홍삼빵"류 제품으로 그간 제품의 단조로움으로 매출 증가에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하여 홍삼 마스크팩, 홍삼초코파이 등 총4건의 기술이전 성과를 거두어, 명실공히 진안홍삼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농작업 안전사업 컨설팅

무주군은 11일부터 12일까지 농작업 안전사업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편이장비 지원과 맞춤형 안전관리를 위해 대상 지역의 농작업 환경을 조사하고 농가에 편이장비 사업추진배경과 절차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것으로, 지난 11일에는 홍익대 이관석 교수와 전주대 권규식 교수가 실천면 하남평마을 사과작목반과 안성면 지도지회를 대상으로, 12일에는 한밭대 민병찬 교수가 실천면 기곡포도작목반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을 받은 주민들은 "고령자와 여성농업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농촌 현실에서 현장과 작업자의 특성에 맞춘 편이 장비들은 생산성 증대에 굉장한 도움이 된다"며 "이번 컨설팅은 안전의식을 키우는 동시에 편이장비를 내 작업 상황에 맞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됐다"고 전했다.

군은 고령화·부녀화에 따른 농작업 부담을 줄이고 작업능률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농규모는 작지만 주 작목 농가 비율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마을이나 단체, 농작업량이 많아 개선이 시급한 마을이나 단체 등에 편이장비를 지원하고자 한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천천면, 주요 도로변 꽃 심어

장수군 천천면(면장 김진홍)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 꽃 식재사업을 전개해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나가고 있다.

천천면은 지난 3월부터 천천면에서 장수읍을 잇는 주요도로변과 마을입구, 하천변 등지에 봄꽃을 식재했다.

천천면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 1일 3시간씩 월 10일 동안 실시되며 노노케어, 공공시설관리, 지역사회환경개선 등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제공으로 소득보전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등 지역사회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김진홍 천천면장은 "봄꽃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꽃 식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꽃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교관호 기자

진안고원

고향의 정(情)이 살아있는
진안고원 고향할머니장터
장~ 보러 오세요

운영일자: 매 주말 운영(4,9일장)
장 소: 진안고원시장 중앙광장 내

행사문의
진안군청 전학사업과
063-430-2951